



[산업]
U+ AR스튜디오 가보니
청하·홍진영과 춤을?
4K 가상현실로 즐긴다
05



Life

[라이프]
입국장 면세점 개장
소비활성화 vs 품목제한
엇갈리는 반응
니



‘컨설팅 비용’으로 여행 계획 척척 두려움 버리고 신비로운 중남미로

메트로 트랙블

특수지역 여행사 비운드코리아
여행 컨설팅 비용 시스템 도입
2명 이상 항시출발 가능 큰 장점

최근 중남미와 코카서스3국(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 특수지역 전문여행을 이끄는 비운드코리아 김봉수 대표가 새로운 ‘여행 컨설팅 비용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혀 메트로 트랙블이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중남미여행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15일에서 20일 일정을 소화해야 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한 여행지기에, 설레임과 기대치가 훨씬 크다”고 운을 뗀 비운드코리아 김봉수 대표는 “15일짜리 중남미상품이 제일 인기 있다”며 “페루마추픽추, 나스카 경비행기,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사막,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이과수폭포 등 키워드 지역 및 스팟이 꾸준히 인기있다”고 2일 말했다.

그는 “비운드코리아상품은 2명 이상 항시출발이 가능하고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갈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타 상품과 차별화된 부분을 강조했다.

그는 “중남미 여행에 관심있게 된 계기는 1997년 하나투어 미주팀에 입사해 지금까지 미주 및 중남미 특수지역을 계속 담당 해왔는데, 악천후만 아니라면 관광지에 간 여행객들이 너무 재밌어 하는 부분에 감동 받았다”며 이과수폭포, 마추픽추, 우유니 소금사막 등



김봉수대표.

/이민희 기자

중남미 여행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부연 설명했다.

그는 또 “중남미 여행은 만족도가 아주 높아, 일반관광뿐 아니라 기업 인센티브도 고려할만한 지역”이라고 MIC E에 대한 수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기존 무료 서비스로 관행화된 여행 컨설팅 비용을 여행사가 비용을 책정해 예비 여행자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가치를 부여하는 안전하고 알찬 경제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비운드코리아는 ‘우수 아이아’, ‘엘 칼라파테’ 등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최고의 명소들을 준비해 비운드코리아의 슬로건인 ‘가보지 못한 곳을 간다’를 실현 키 위해 이번 ‘여행 컨설팅 비용 시스템’을 여행시장에 내놓았다”고 비전을 나타냈다.

한편 중남미 전문가인 김봉수 대표는 올해 여행 업계 20년차로 현재 비운드코리아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라파항공 영업총괄, 아비앙카타항공 이사, 아르헨티나항공 및 페루비안항공과 아마소나스항공 한국 총판(GSA) 대표와 쿠스코 운스카사 대표직을 맡고 있다.

이번 비운드코리아 ‘여행컨설팅 비용 시스템 구축’은 소비자들의 중남미 여행 등 특수지역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중남미 여행에 대한 편견을 없앨 뿐 아니라 특수지역 관련 문의 및 상담이라는 컨설팅으로 낸 돈 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기회비용 및 실제 비용)을 통해 퀄리티 높은 여행의 가치를 부여 받을 기회가 예비 여행자들에게 제공 될 전망이다.

/이민희 기자 lnh@metroseoul.co.kr



(왼쪽부터) 이스타항공 최종구 대표이사, 제주항공 이석주 대표이사, 창이공항그룹 왕 운 리옹 수석고문, 부산광역시 유재수 경제부시장, 한국공항공사 손창완 사장, 실크에어 푸 차이 우 CEO가 5월 31일 파크 하얏트 부산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싱가포르-부산 교류 증진 위해 MOU

관광 활성화 등 전략적 파트너십 추진

공항그룹 수석고문, 3개 취항 항공사 CEO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부산광역시, 창이공항그룹, 한국공항공사,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실크에어는 5월 31일 부산 파크하얏트부산에서 싱가포르와 부산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다자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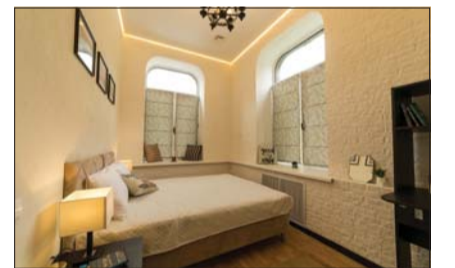
이번 양해각서는 2019년 5월 31일부터 2020년 5월 30일까지 1년 동안 무역, 비즈니스 및 관광 활성화 등 싱가포르와 부산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부산광역시와 창이공항그룹, 한국공항공사는 두 지역의 항공 연계 강화를 비롯해 각 항공사의 서비스 인지도 향상 및 노선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두 지역 시민들은 향후 로드쇼, 여행 박람회 및 캠페인 등의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만날 수 있게 된다.

/이민희 기자

투어벨여행사

블라디보스톡, 대저택 ‘굶 스테이’ 오픈

시설·위치 등 여행객 만족도 높아



종합여행사 투어벨이 5월 계약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굶스테이 게스트하우스’ /투어벨

‘가까운 유럽’으로 알려진 러시아 연해주 항만도시 블라디보스톡, 많은 먹거리와 가까운 거리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어 자유여행객이 찾는 여행지다.

2019년 5월, 종합여행사 투어벨은 블라디보스톡 프리미엄 숙소인 굶 스테이 게스트하우스에 투자, 오픈했다. 굶 스테이는 굶 백화점 설립자인 ‘군스타리’ 귀족 일가가 살았던 대저택을 세련된 내부 리모델링하여 블라디보스톡의 대표적인 숙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블라디보스톡 시내 중심에 위치한 굶 스테이는 굶 백화점, 개신교, 혁명광장, 해양공원 등 주요 관광지까지 도보 5분, 블라디보스톡의 유명한 야경명소인 독수리전망대까지 15분이면 도보 이동 가능하다.

굶 스테이는 2인실부터 8인실까지 약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사이즈다. 2인실과 4인실은 연인 또는 가족끼리 이용하기 적합하고, 도미토리 객실은 각 침대마다 커튼과 작은 조명이 달려 있어 프라이빗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6월 30일까지 굶 스테이 예약 고객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도보야경투어는 무료제공, 공항에서 굶 스테이까지 픽업서비스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민희 기자

‘韓 취항 35주년’ KLM 네덜란드 항공 방한

피터 엘버스 KLM 항공 대표
“지속가능 여부 항공업 성패 결정”

“지속 가능한 발전 여부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항공기업의 성패를 가르게 될 것이다.”

한국 취항 35주년을 맞아 방한한 피터 엘버스 KLM 네덜란드 항공 대표이사 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30일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를 통해 한국 시장에서의 미래 비전과 핵심 키워드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꼽았다.

1919년 설립 이래 현존 가장 오래된 항공사 KLM 네덜란드 항공은 1984년 한국에 첫 취항을 시작해 올해로 취항 35주년 째다.

피터 엘버스 대표이사는 “네덜란드와 한국은 국경, 산업, 문화를 뛰어넘는 협력에 익숙한 나라다”며 “한국에는 필립스, 하이네켄, 유니레버 등 많은 네



KLM 네덜란드항공 피터 엘버스 CEO는 “1984년 최초취항이후 한국 항공 산업의 역동적 발전에 KLM이 함께해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고 35주년 기념사에서 강조했다.

/이민희 기자

덜란드 기업이 진출해있고, 네덜란드엔 한국의 대한항공, LG, 현대기아차, 한국타이어 등 유수의 기업들이 진출해있다. 양국교역관계에서 보면 네덜란드는 한국으로 약 69억달러를 수출하고, 한국은 네덜란드로 48억달러를 수출중이다”고 이어갔다.

/이민희 기자

엘버스 대표이사는 “이런 양국승객 및 화물수송에 KLM이 큰 역할을 해왔다”며 “현재 서울-암스테르담 노선을 주7회 운항중인데, 지난 12개월 통계치를 보면 이용 승객수 20만명 중 60%가 한국인이다”고 감사의 말을 이어갔다.

엘버스 대표이사는 또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과 일본을 함께 관할했던 만큼 한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사랑에 대해 각별함을 밝혔다.

KLM은 세계 최초로 바이오 연료 사용 항공편을 운행하며 업계 내 친환경화를 주도해왔다. 특히 최근 KLM은 바이오 연료 생산기업인 스카이엔 알지(SkyNRG)와 손 잡고 2022년까지 전 세계 최초로 바이오 연료 생산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베트남 뱀부항공, 8월 한국 취항 예정

베트남 국적의 신생 항공사 뱀부항공(QH)이 한국 진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지난 3월 PAA(퍼시픽에어에이전시 그룹·회장 박종필)과 GSA를 체결한 뱀부항공은 5월 29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GSA 론칭 세레머니 및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8월 취항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뱀부항공은 항공기 도입에도 차차를 가하고 있다. A321네오 3대와 A320네오 5대, A319 1대 등 총 9대를 보유 중이며 프랑스 에어버스사와 A321네오 50대 구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미국 보잉사와도 B787-9 총 30대 구매 계약을 맺었다.

뱀부항공은 호텔 및 부동산 기업인 베트남 ‘FLC 그룹’ 자회사이기도 하다.

뱀부항공은 지난 1월 16일 호치민-하노이 노선을 시작으로 국내선 20개 노선을 취항해 운항 중이다.

/이민희 기자